고유가·기상악화에 지난해 어업생산량 23만t 줄었다

1년 전보다 6% 감소 360만4000t…전남 국내 생산량 58.3% 차지
어업생산액 0.4% 감소 9조22413억원…내수면어업은 33.3% 증가

지난해 어업생산량이 어군 형성의 부진과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과 해양수산부가 24일 발표한 '2022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작년 어업생산량은 360만4000t으로 1년 전보다 22만9000t(6.0%) 감소했다.

연·근해어업에서 생산 비중이 큰 멸치, 살오징어, 참조기 등의 어군 형성이 부진하고 양식 작황도 좋지 않아 전체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해수면(바다)에서 어류·갑각류 등을 채취하는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지난해 88만7000t으로 1년 전보다 5만6000t(5.9%) 줄었다.

다시마류, 홍합류 등의 작황 부진으로 해면양식업 생산량도 1년 전보다 13만3000t(5.6%) 줄어든 226만8000t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유가가 오르고 성수기인 9월에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선박의 출항이 줄어든 점도 전체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해수부는 올해 양식업 생산량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작년 여름과 올해 초 고수온·저수온 등으로 인한 어업피해가 크지 않았고 작년 양식수산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종자 입식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원양어업 생산량은 40만t으로 4만6000t(10.3%) 감소했다. 자원량과 조업 어선이 줄면서 대서양의 오징어류, 태평양의 황다랑어 등의 생산량이 줄었다.

꽁치와 대구도 조업개시 시점이 5월에서 7월로 연기되고 어장 자원량 감소, 기상악화 등이 맞물려 전년 대비 어획량이 줄었다.

해수부는 올해 신규 어선투입, 오클랜드 수역 어황 호조 등 조업상황이 개선되며 원양어업 주요 어종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천·저수지·호수 등에서 어·패류 등을 포획하거나 인위적인 시설물로 민물 어·패류 등을 기르는 내수면어업은 4만9000t으로 6000t(14.3%) 증가했다.

어종별로 보면 청어 생산량이 2만8000t으로 98.3% 증가했다. 방어류(41.4%), 젓새우류(23.2%), 넙치류(9.8%) 등도 생산량이 늘었다.

청어의 경우 2021년 20㎝미만 포획금지체장을 신설해 어린 청어를 어획하던 어획강도가 대폭 낮아지며 경북 연안을 중심으로 생산량이 증가했다.

다시마류(-18.2%), 살오징어(-40.0%), 참조기(-48.0%), 멸치(-7.9%) 등은 줄었다.

원양어업 어종인 황다랑어(-14.6%), 눈다랑어(-10.3%), 꽁치(-28.2%), 대구(-53.2%)도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강원(15.3%), 경북(10.6%), 충남(1.7%) 등에서 생산량이 늘고 제주(-12.6%), 부산(-8.7%), 전북(-8.2%), 경기(-7.3%) 등에서 줄었다.

비중으로 보면 전남이 전체 국내 생산량(320만4000t)의 절반이 넘는 58.3%를 차지했다. 경남(16.5%), 부산(7.9%), 충남(4.4%) 등이 뒤를 이었다.

어획량 감소로 전체 어업생산금액은 9조2413억원으로 1년 전보다 404억원(0.4%) 감소했다.

연·근해어업(-2.7%)과 원양어업(-16.9%)의 생산액이 줄었으나, 해면양식업(3.9%)과 내수면어업(33.3%)은 늘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연합뉴스

박종탁(가운데) 농협 전남지역본부 본부장이 본부 1층 로비에 문을 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홍보관을 둘러보고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농협 전남본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홍보관 개관

농축특산물 106개 품목 전시
전남 쌀 홍보관도 별도 운영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홍보를 위해 지역본부 1층 로비에 답례품 홍보관을 개관했다고 26일 밝혔다.

홍보관은 전남 23개 지방자치단체 답례품으로 선정된 농축협의 다양한 농축특산물(83곳, 106품목)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또 전남 쌀 홍보관을 별도로 구성해 전남 쌀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농협은 홍보관 운영과 더불어 홍보관 방문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 기부 참여자의 수요가 반영된 전남농협만의 특색 있는 답례품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종탁 전남농협 본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농업·농촌 지역의 재정확충과 지역 농·축산물 소비 및 판로 확대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며 "나아가 일자리 창출, 지역 소멸위기 극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국민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드리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농업인·농기계보험, 보험료 낮추고 가입대상 확대

농업인안전보험료 3.4%·농기계보험 12.6% 인하

오는 3월부터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보험료가 내려간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료를 상품별로 0.3~3.4% 인하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으로 농업인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 진단을 받은 경우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보험이다.

이밖에 농기계종합보험도 12개 기종의 평균 보험료를 12.6% 내린다.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농기계 작업·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정부는 농업인이 부담하는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 가입 대상도 확대된다. 일반2·3형 상품의 경우 가입연령 상한이 84세였지만,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라 다음 달부터 상한을 87세로 높인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보험료 국고 지원 상한을 높이고 농기계손해 보장 항목의 무사고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확대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aT, K-푸드 수출 확대 추진단 출범

현장 중심 수출 지원 강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K-푸드 수출 1000억 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K-푸드 수출 확대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추진단은 김춘진 aT 사장이 직접 단장을 맡고 진두지휘한다. 추진단은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목표 135억 달러 달성을 위해 수출 동향 분석과 비관세장벽 등 국내외 이슈를 상시 점검하고 수출기업의 애로를 파악해 해소하는 등 현장 중심의 수출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춘진 사장은 "국가 전체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공사는 지속적인 수출 유망품목 육성과 시장 다변화, 홍보 확대 등 다양한 지원으로 올해 수출 목표 135억 달러 달성은 물론 K-푸드 수출 1000억 달러 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3고(금리·환율·물가) 위기에도 '김치의 날' 글로벌 확산, K-푸드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 다양한 노력으로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 120억 달러 달성에 기여한 바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 묘목류 특별 검역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묘목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내달 한 달간 수입 묘목류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특별검역 기간 실험실 정밀검역 수량을 2배로 확대하고 검역현장에는 2인1조로 식물검역관을 배치한다.

묘목류 판매시장을 중심으로 수입 묘목류와 수분용 꽃가루 등의 불법 유통 여부를 점검한다.

또 묘목류 수입업체에는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을 수입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